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성서패러디를 통한 자본주의 비판
-브레히트의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을 중심으로-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문학전공
김 빛 나 래

성서패러디를 통한 자본주의 비판
-브레히트의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오 순 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문학전공
김 빛 나 래

김빛나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 다룬 브레히트의 작품은 오페라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이다. 그의 중기 작품으로 분류되는 이 오페라 대본은 무정부주의적이었던 청년 브레히트에서 사회주의 작가로 변환되는 시기에 집필된 작품이다. 브레히트는 이 작품에서 신랄한 자본주의 비판을 보여준다.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본주의 비판의 도구로 작가가 성서패러디를 행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브레히트가 성서를 차용한 이유를 세속화된 기독교로 본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본분을 잊고 자본이나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기독교, 특히 칼뱅의 종교 윤리로 말미암아 발전했다는 명제를 제시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브레히트가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 집필할 당시 나치권력에 순응하고 타락했던 독일의 기독교에 대해 알아본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신을 잃어버린 자본주의와 세속화된 기독교가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에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주요어 : 베르톨트 브레히트,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 기독교, 성서, 자본주의

학 번 : 2006-20041

목 차

서 론	1
I. 기독교의 세속화	10
1. 자본주의와 기독교 - 베버의 관점을 중심으로	10
2. 정치권력과 기독교 - 파시즘을 중심으로	5
II. 성서패러디를 통한 자본주의 비판	20
1. 마하고니시의 설립 - ‘약속의 땅’의 허상	22
2. 마하고니시의 번영 - 십계명의 전도	32
3. 마하고니시의 몰락 - 부활이 없는 수난	42
결 론	48
참고문헌	50
Zusammenfassung	54

서론

본 논문에서는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1898-1956)의 중기¹⁾ 작품인 오페라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 Aufstieg und Fall der Stadt Mahagonny』²⁾(1931)을 연구하고자 한다. 브레히트는 작품에서 쾌락의 도시인 마하고니의 설립에서부터 멸망까지의 과정을 그렸다. 이 작품은 마하고니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허황된 환상을 깨뜨리며 그가 전망했던 자본주의 체제의 절망적인 귀결을 보여준다. 그는 이 오페라작업에 대한 계획을 1924년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쿠르트 바일 Kurt Weill(1900-1950)이 제안한 바덴바덴 음악극 축제 출품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³⁾ 브레히트는 음악극 출품을 위해 『가정기도서 Hauspostille』(1927)에 수록된 시 중에 몇 개를 고르고 거기에 에펠로그를 추가하여 『마하고니 노래극』⁴⁾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오페라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의 시작이다.⁵⁾ 이 노래극은 1927년 7월 17일 바덴바덴에서 에른스트 멜리히 Ernst Mehrlich의 지휘와 카스파 네어 Caspar Neher가 담당한 무대장치로 공연되었다.⁶⁾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뒤 브레히트와 바일은 다시 오페라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 작업에 착수하여 첫 무대를 1930년 3월 9일 라이프치히 노이에스 테아터 Neues Theater Leipzig에서 구스타프

1) 엘리자베스 라이트: 포스트모던 브레히트, 김태원·이순미 역, 현대미학사 2000, 16쪽 참조.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작가적 발전 단계는 일반적으로 초기(1913-1926), 중기(1926-1933), 후기(1933-1956)로 구분한다.

2) Bertolt Brecht: *Aufstieg und Fall der Stadt Mahagonny*, Berlin 1968.

3) Vgl. Jan Knopf: *Brecht Handbuch*, Stuttgart 2001, S. 178.

4) 이 노래극은 *Mahagonny Sonspiel* 내지는 *Das kleine Mahagonny*라고 지칭된다.

5) 『마하고니시』 노래극을 위해 『가정기도서』에서 발췌한 시는 *Mahagonny Song*, *Allabamma Song*, *Benares Song*, *Aber dieses ganze Mahagonny*이다.

6) Vgl. Knopf: *Brecht Handbuch*, Stuttgart 1986, S. 64.

브레히트 Gustav Brecher의 지휘, 발터 브뤼그만 Walter Brüggemann 연출, 카스파 네어의 무대장치로 올렸다. 당시 브레히트는 볼셰비키 예술의 대변자로, 바일은 유대인 음악가로 나치주의자들의 공격의 대상이었다. 나치주의자들은 이 공연 역시 퇴폐예술로 규정하고 나치돌격대를 출동시켜 공연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오페라 형식과 쿠르트 바일의 현대적인 음악은 호평을 받는데 한스 하인츠 슈투켄슈미트 Hans Heinz Stuckenschmidt는 『디 스테네 Die Scene』에서 “이 작품은 발전사적으로 현재의 음악극 창작의 정상에 서 있다.”⁷⁾고 호평한다. 라이프치히 공연 이후 브레히트와 바일은 텍스트의 수정을 거쳐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1931)을 완성한다.⁸⁾ 본 논문에서 연구할 텍스트인 이 최종 판본은 1931년 『시도 Versuche』 2권에 실렸으며 작품에 대한 주석도 첨가된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판본이 실린 『시도』는 1930년부터 발행된 새로운 출판형식의 책이다. 『시도』는 브레히트가 평생 동안 가장 선호했던 형식으로 독자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읽고 난 후에는 버려도 아깝지 않도록 잡지와 같이 얇은 표지로 출판되었다. 호화로운 서재에 있을 법한 화려한 양장본대신 택한 이 출판형식을 통해 브레히트가 강조한 것은 작품의 사용가치였다. 사용가치란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문학을 이데올로기 선전매체로 ‘사용’한 것과 같은 ‘사용’가치의 의미가 아니라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 능동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작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 이는 칼 마르크스 Karl Marx가 『자본론 Das Kapital』(1867)에서 언급한 상품의 표층의 ‘교환가치 Austauschwert’

7) Zit. nach: Brecht: Werke. Große kommentierte Berliner und Frankfurter Ausgabe, Bd. 2, (Hg.): Werner Hecht u .a., Berlin u. Weimar Frankfurt a. M. 1988, S. 465.

8) Vgl. Knopf: Brecht Handbuch. Stuttgart 2001, S. 179 f.

와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상품의 심층에 가진 유용성을 강조하며 언급했던 ‘사용가치 Gebrauchswert’와 일맥상통한다. 이런 형식으로 출판된 작품은 그것의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휴지통에 버려질 수도 있는데 브레히트는 이로 인해 작품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의 머리와 행동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아 생산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⁹⁾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과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에 대한 주석 Anmerkung zur Mahagonny」이 실린 『시도』 2권에는 『도시인들을 위한 독본 Aus dem Lesebuch für Städtbewohner』¹⁰⁾, 『동의에 관한 바덴의 교육극 Das Badener Lehrstück von Einverständnis』¹¹⁾ 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다. 이 작품들은 『시도』 2권에 실리기 전 일련의 수정 작업을 거쳤다.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 또한 수정된다. 첫 번째 판본에서 주인공 파울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쾌락을 추구했던 삶을 후회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적이고 아웃사이더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두 번째 판본에서는 파울이 뒤늦게 후회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수정되어 실린다. 최종판본의 수정 시기는 브레히트가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¹²⁾

9) 이승진: 브레히트의 음반실험: 시집 『도시인을 위한 독본』, 실린 곳: 브레히트의 서사극,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93, 280쪽 이하 참조.

10) 1927년 「베를린 증권시보 Berliner Börsen-Courier」에 실린 「위험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Reden Sie nichts von Gefahr」, 「너희들의 꿈이 가게 놔두어라 Laßt eure Träume fahren」를 포함하여 1928년까지 쓴 15개의 시 중 4편을 선별하고 1926-1927년에 쓴 시 중에 6편을 선별하여 『시도』 2호에 도시인들을 위한 독본이라는 제목으로 실는다.

11) 1929년 바덴바덴 실내 음악제에서 『학습극』이라는 제목으로 초연 후에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이라는 제목으로 『시도』 2호에 실린다. 비행기 사고로 추락한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동의’하는 자세를 학습하는 과정을 다룬다.

12) 김기선: 작품분석, 실린 곳: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 131쪽 참조.

브레히트는 1926년 마르크스주의를 접하지만 마르크스에 대한 신뢰가 생긴 시기는 교훈극을 쓰기 시작한 때, 특히 고르키의 『어머니 Mutter』(1930)를 개작한 시

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내 연극들을 이해하게 됐다. 사람들은 이 책이 널리 읽히기 바라는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물론 나는 나도 모르게 마르크스주의적인 희곡들을 한 보따리나 썼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제껏 본 관객 중 유일하게 내 연극을 위한 관객이었다. 왜냐하면 내 연극들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ls ich *Das Kapital* von Marx las, verstand ich meine Stücke. Man wird verstehen, daß ich eine ausgiebige Verbreitung dieses Buches wünsche. Ich entdeckte natürlich nicht, daß ich einen ganzen Haufen marxistischer Stücke geschrieben hatte, ohne eine Ahnung zu haben. Aber dieser Marx war der einvige Zuschauer für meine Stücke, den ich je gesehen hatte. Denn einen Mann mit solchen Interessen mußten gerade diese Stücke interessieren.¹³⁾

브레히트가 1928/29년에 쓴 위의 글로 미루어 봤을 때 브레히트는 이미 마르크스의 사상에 심취했던 것으로 보이며 『시도』를 위한 수정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은 브레히트가 마르크스를 접하기 전인 초기 시들로 이루어진 『가정기도서』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은 작가의 작품적 발전단계의 초기와 중기에 걸쳐 집필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내용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 되는데 특히 헬프리트 젤리거 Helfried W. Seliger는 작품 안에 초기 젊은 브레히트가 추구하던 아나키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자본론 *Das Kapital*』(1867)을 접한 후 갖게 된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있어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고 통일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한다.¹⁴⁾

기로 보는데 이는 브레히트의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 집필시기와 일치한다.
13) Brecht: GBA, Bd. 21, S. 256.

14) Vgl. Helfried W. Seliger: *Das Amerikabild Bertolt Brechts*, Bonn 1974, S. 144 f.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에 대한 첫 논문은 1963년 데이비드 드류 David Drew의 「마하고니의 역사」¹⁵⁾이다. 이 논문은 참고 문헌의 양은 취약하지만 작품의 생성사를 처음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 글에서 나아가 프리츠 헤넨베르크 Fritz Hennenberg는 1987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세세하게 연대순으로 작품의 생성사를 다룬다.¹⁶⁾ 헬프리트 켈리거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미국이미지 Das Amerikabild Bertolt Brechts』¹⁷⁾에서 『마하고니 노래극』과 오페라 판본을 비교하며 작품 안에서 미국적인 요소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묘사된 점을 예시로 하여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을 브레히트의 과도기 작품으로 규정한다. 한편 존 밀풀 John Milful은 이 작품을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반유토피아적인 종말극으로 보며 브레히트가 자신의 초기 작품에 대한 비판론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이해했다.¹⁸⁾ 1976년 군터 제엠 Gunter G. Sehm은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에서 성서패러디라는 주제를 최초로 다룬 논문 「모세, 그리스도 그리고 파울 아커만 Moses, Christus und Paul Ackermann」¹⁹⁾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제엠은 작품 속 장면을 성서의 구절과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하지만 제엠의 논문의 한계는 종교비판으로서의 성서 패러디라는 테제, 그 이상으

15) Vgl. David Drew: The History of Mahagonny, In: The Musical Times 104, Musical Times Publications Ltd., 1963, S. 18-24.

16) Vgl. Fritz Hennenberg: Neue Funktionsweisen der Musik und des Musiktheaters in den zwanziger Jahren: Studien über die Zusammenarbeit Bertolt Brechts mit Franz S. Bruinier und Kurt Weill, Dissertation B, masch., Martin-Luther-Universität, Halle-Wittenberg 1987.

17) Vgl. Helfried W. Seliger: Das Amerikabild Bertolt Brechts, In: Studien zur Germanistik, Anglistik und Komparastik, Bd. 21, Bonn 1974, S. 144-153.

18) Vgl. John Milfull: From Baal to Keuner. The Second Optimism of Bertolt Brecht, Bern/Frankfurt a. M. 1974, S. 24-57.

19) Vgl. Gunter G. Sehm: Moses, Christus und Paul Ackermann, Brecht Jahrbuch 6, Frankfurt a. M. 1976, S. 83-100.

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국제 브레히트 학회에서 2004년 『마하고니 닷 컴 Mahagonny.com』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브레히트 연감 Brescht's Yearbook』 제29집이 있다. 이는 2003년 6월 베를린에서 열린 제11회 국제브레히트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마크 실버만 Marc Silbermann과 플로리안 바센 Florian Vassen의 감수로 출판한 것이다. 총 29편의 논문이 내용에 따라 ‘유-토포스 U-topos’, ‘컨텍스트 context’, ‘음악 music’, ‘텍스트 text’, ‘영향 echo’, 다섯 분야로 분류되어 수록되어있다. 위 학회지에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재들을 주제로 하여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의 연구에 다양성을 주고 있는데 『마하고니 닷 컴』에 실린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유-토포스’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마하고니를 근대 관광 문화와 접목시킨 마르쿠스 베젠도르프 Markus Wessendorf의 연구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존 어리 John Urry의 『투어리스트 게이즈 Tourist Gaze』(1990)를 접목시켰다. 마하고니를 19세기 중반 단체관광의 역사를 상징하고 함축한다고 보았고 현재의 관광명소인 라스베가스나 하와이와 관련지어 서술한다.²⁰⁾ ‘컨텍스트’에 실린 글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아스트리드 오스만 Astrid Oesmann과 하인즈 브뤼게만 Heinz Brügemann의 논문이다. 오스만은 브레히트 작품의 주제가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의 자본주의 비판에서 『제3제국의 공포와 참상 Furcht und Elend des Dritten Reiches』(1938)의 파시즘 비판으로 이르기까지의 발전 단계를 서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육극 Lehrstück’의 역할에 주목하였다.²¹⁾ 브뤼게만은 프란츠 카프카

20) Vgl. Markus Wessendorf: Mahagonny and the Tourist Gaze, In: Mahagonny.com,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4, S. 85-97.

21) Vgl. Astris Oesmann: Tracing the crimes of Capitalism: From Mahagonny to Nazi Germany, ebd., S. 99-112.

Franz Kafka의 오클라호마 극장과 그물망 도시(Netz-Stadt) 마하고니를 근대의 형상화된 도시로 보고 『실종자 Der Verschollene』(1912)와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의 공통점인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와 무질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²²⁾ 작품의 ‘영향’ 부분에는 노베르트 에케 Norbert Eke와 엘케 브룬스 Elke Brüns의 글이 실려 있다. 에케는 브레히트의 작품과 로타르 트롤 Lothar Trolle의 『도시의 헤르메스 Hermes in der Stadt』(1991)를 비교 분석하고 두 작품의 공통된 결말인 세계종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였다.²³⁾ 브룬스는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마하고니라는 쾌락사회가 르네지라르의 ‘무차별현상 indifférenciation’ 속에 있다고 보았고, 주인공 파울을 ‘희생대체 substitution sacrificielle’로 간주했다.²⁴⁾

오페라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은 현재까지도 공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베를린 코미셰 오페라 극장 Komische Oper Berlin에서 극장의 총감독인 안드레아스 호모키 Andreas Homoki의 연출로 브레히트 사후 50주년 기념공연으로 2006년에 공연되었고 2010년에 동일한 감독과 연출로 다시 한 번 공연되었다.²⁵⁾ 쾰른 오페라극장 Oper Köln에서 카타리나 탈바흐 Katharina Thalbach의 연출로 2011년 3월에 공연이 올려졌다.²⁶⁾ 또한 2013년 12월 현재 베네딕트 본 페터 Benedikt von Peter의 연출로 브레멘극장 Theater Bremen에서의 공연되고 있으며 이 공연은 2014년 2월까지 공연될

22) Vgl. Heinz Brügemann: Franz Kafkas Theater von Oklahoma und Bertolt Brechts Netzstadt Mahagonny: Urbane Visionsräume der Moderne, a. a. O., S. 113-125.

23) Vgl. Norbert Eke: Götter in der Stadt oder “Wo Aas ist, sammeln sich die Gerier!”: Stadtuntergänge bei Brecht und Trolle, a. a. O., S. 379-393.

24) Vgl. Elke Brüns: Spaß muss sein? Mahagonny und die Spaßgesellschaft, a. a. O., S. 395-405.

25) Komische Oper Berlin, (<http://www.komische-oper-berlin.de>), 27.12.13.

26) Operkoeln, (<http://www.operkoeln.com>), 27.12.13.

예정이다.²⁷⁾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극영화과 학생들의 학내 공연 이외에는 공연된 바가 없으며 1998년 브레히트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열린 <브레히트 시에 의한 가곡과 노래의 밤> 공연에서 <마하고니 노래 Mahagonny Song>가 연주된 것 이외에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²⁸⁾

국내에서는 브레히트가 사회주의 작가로 분류되어 그의 작품들은 1989년까지 금서였지만 그 후 해금되면서 브레히트 관련 연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브레히트 관련 연구는 주로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과 서사극이론이 확립된 후기 작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초·중기작품의 경우에는 『바알 Baal』(1919)과 『서푼짜리 오페라 Die Dreigroschenoper』(1928)를 제외하고는 연구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룬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은 김기선의 번역과 윤시향의 번역, 두 판본으로 출판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국내논문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작품의 성립배경과 과도기적인 성격, 쿠르트 바일의 음악적인 요소, 새로운 오페라 형식에 대한 탐구에 중점을 두었다.²⁹⁾

본 논문은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에서 성서 모티브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브레히트는 이 작품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과 브레히트가 전망했던 자본주의 체제의 절망적인 귀결을 성서 패러디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본고 제1장에서는 먼저 브레히트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방법으로 기독교

27) Theater Bremen, (<http://www.theaterbremen.de>), 27.12.13.

28) 같은 해 학전에서 김민기 연출로 공연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었다.

29) 국내 논문으로는 김기선: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 작품분석, 실린 곳: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 성신여대출판부 2003; 박현미: 브레히트와 바일의 <서사적 오페라> - 『마하고니 시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신수경: 쿠르트 바일의 음악극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윤시향: 『마하고니시의 흥망성쇠』 작품분석, 실린 곳: 브레히트의 연극세계, 열음사 2001.이 있다.

교모티브를 택한 이유가 세속화된 기독교에 있다고 보고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관계 그리고 권력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막스 베버 Max Weber의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 연원을 찾아보고 권력과 기독교에 관해서는 파시즘과 결탁했던 역사적 상황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 텍스트 안에서 성서 패러디가 어떠한 방식으로 브레히트의 비판의식을 드러내 주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 기독교의 세속화

1. 자본주의와 기독교 - 베버의 관점을 중심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부의 추구가 당연시되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스 베버는 1905년 발표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에서 ‘합리적 자본주의 정신’을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서 찾았다. 베버는 자본주의 발달 단계에서 ‘합리적 정신’이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베버가 말하는 ‘합리적 자본주의’란 영리욕구, 이윤추구, 최대한의 화폐취득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이윤과 손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말한다.³⁰⁾ 그는 이러한 ‘합리적 자본주의’가 서양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문을 품던 중에 기독교를 그 사회적 원인으로 주목했다. 베버는 그중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국교가 프로테스탄트교임에 착안하여 자본주의의 정신의 기원을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보았으며 또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자본주의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³¹⁾ 베버는 프로테스탄트교만의 특별한 정신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교도의 자녀들이 가톨릭계 학생들보다 영리추구 활동을 위해 실업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과 근대적 대기업 형태의 숙련공 중에 가톨릭교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프로테스탄트교도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예로 든다. 베버는 이러한 차이

30)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옮김, 도서출판 길
2010, 15쪽 이하 참조.

31) 베버: 같은 책, 45쪽 이하 참조.

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종파적 특징에서 온다고 보았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힌다.³²⁾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소명’ 개념과 ‘예정론’이 만나서 탄생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합리적 자본주의’ 정신의 연원으로 보았다.

베버의 연구에 따르면 ‘소명’이란 독일어에서 ‘직업 Beruf’과 영어의 ‘직업 calling’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 이는 ‘부름’이라는 종교적인 뜻을 담고 있는데 부름의 의미를 가진 ‘직업’이라는 단어는 비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베버는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의 기원을 종교개혁 시대로 보았고 정확히는 그때 번역된 성서에서 소명개념이 소급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성서 자체의 정신이 아니라 번역가인 루터의 정신에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새로운 직업개념은 종교개혁의 산물이며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현세에서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종교의 도덕적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이때부터 세속적인 노동은 부름에 응답하기 위한 종교의 도덕적 실천행위로 평가되었다.³³⁾ 하지만 루터는 신이 정해 준 직업과 신분에 머물러야 한다는 전통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³⁴⁾

베버가 두 번째로 제시한 자본주의 정신의 근원은 예정설이다. 사람을 위해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위해 사람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칼뱅 신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예정론이란 칼뱅의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선택되어 있다는 교리이다.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은 단지 소수이고 그 결정

32) 베버: 같은 책, 70쪽 이하 참조.

33) 베버: 같은 책, 121쪽 이하 참조.

34) 베버: 같은 책, 129쪽 참조.

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신의 절대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운명은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으로 바뀔 수 없다. 가톨릭교회가 은총으로 신자들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사제를 통한 죄의 사함으로 구원의 희망을 주었던 것과 달리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은 개개인 혼자 고독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야 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신의 권위를 넘보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내적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칼뱅은 예정에 대한 ‘증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쳤다. 칼뱅은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그러한 확신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은 끊임없는 직업노동이라고 말한다. 이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내적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충실하게 노동하였고,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금욕적인 교리로 인하여 이윤의 축적은 극대화되었다.³⁵⁾ 이렇게 예정론으로 인한 고독감은 현세에서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소명감으로 탈바꿈하였고 근면과 절제, 그리고 절약 즉 금욕적인 삶을 살게 해 주었다. 상업을 탐욕으로 생각하고 부의 증가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죄악으로 여겨졌던 중세 가톨릭 시대와 달리 부의 축적이 오히려 종교윤리로서 고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을 신의 도구로 여겼던 칼뱅의 정신을 이어 받은 영국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박스터 Richard Baxter는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 The Saints' Everlasting Rest』(1650)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만약 신이 너희에게 너희의 영혼이나 다른 자들의 영혼에 해를 끼치지 않고도 다른 방법보다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방법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적은 이윤을 창

35) 베버: 같은 책, 173쪽 이하 참조.

출하는 방법을 따른다면, 너희는 너희가 받은 소명(calling)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신의 청지기(Verwalter/stewart)³⁶⁾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되며, 또한 신의 선물을 받아 신이 요구할 때 신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 물론 욕욕과 죄를 위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진정 신을 위한 것이라면 너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좋다.³⁷⁾

이렇게 청교도의 교리는 앞서 언급했던 루터의 전통주의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부의 축적에 가담할 수 있게 했다. 부 자체가 목적인 부의 추구는 금기시 되었지만 직업 노동의 결과로 얻어진 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을 넘어섰고 청교도 교리는 부의 축적에 대한 정당성과 그에 따른 노동에 신성함을 부여해 주었다.

베버는 이렇게 자본주의발전의 이유가 인간의 이윤추구를 신의 계명으로 이해한데에 있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 정신의 종교적인 윤리는 결여되고 금욕주의적인 정신도 사라졌다.³⁸⁾

내가 염려하는 바는, 부가 증대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종교의 속 알맹이가 그에 비례해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문제의 본질상 참된 신앙의 부흥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종교는 필연적으로 근면과 검약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 근면과 검약은 부를 창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가 증대하면 그에 따라 모든 형태의 자만심과 번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 그리하여 종교의 형식은 그대로 남으나 그 정신은 점차 사라져간다. 이처럼 순수한 종교가 계속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별 수 있는 모든 것을 벌고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하도록, 즉 그럼으로

36) 기독교에서 청지기란 재산이 자기의 것이 아닌 하느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재산을 하느님의 일을 위해 쓰는 대리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37) 베버: 같은 책, 342쪽.

38) 베버: 같은 책, 362쪽 이하 참조.

써 부유해지도록 권면해야 한다. [...]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벌고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하는 자 또한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더 많은 은총을 받고 천국에 보화를 쌓아야 한다.³⁹⁾

위의 감리교도 존 웨슬리의 언급으로 볼 때 이미 19세기 영국의 산업 부흥기에 종교정신이 사라지고 현세적 공리주의가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된 금욕주의는 성실하고 고도의 능력을 갖춘 노동자들을 기업가들에게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종교적 금욕주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세에서 재화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신의 섭리의 특별한 역사라고 확신시키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기업가의 영리활동과 노동자의 직업 활동이 ‘소명’으로 해석되면서 기업가가 노동자와 민중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또한 정당화되었다.⁴⁰⁾

칼뱅의 정신이 사라진 자본주의는 더 이상 가치 합리적 (경제) 행위가 아니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정신’이 결여된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칭교도들은 직업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 반면 우리는 직업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욕주의가 수도원의 골방에서 나와 직업 생활 영역으로 이행함으로써 세속적 도덕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또 공장제·기계제 생산의 기술적·경제적 전제 조건과 결부된 더 근대적 경제 질서의 강력한 우주를 건설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 박스터의 견해에 따르면, 외적인 재화에 대한 염려는 마치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얇은 외투”처럼 성도들의 어깨 위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운명은 이 외투를 쇠우리로 만들어버렸다. 금욕주의가 세계를 변형하고 세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이 세계의 외적인 재화는 점증하는 힘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 [...] 오늘날 금욕주의 정신은 그 쇠우리에서 - 영

39) 베버: 같은 책, 356쪽.

40) 베버: 같은 책, 360쪽 참조.

구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 사라져버렸다.⁴¹⁾

‘자유방임주의 laissez-faire’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 Adam Smith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 개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에 의하여 공공의 선이 창출된다고 하였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1776) 이후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논리가 1929년 대공황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자본주의는 초기의 금욕주의적 정신을 벗어 던진 채 이윤추구만을 지향했다.⁴²⁾

또한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은 얼마든지 성서를 자기 편의에 따라 해석하여 악용하였으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는데 종교도 그 자정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종교적 윤리적 의미를 박탈당한 영리 추구 행위는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배금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2. 정치권력과 기독교 - 파시즘을 중심으로

기독교는 때로 지배계급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30년대 독일 교회이다. 독일 기독교는 1차 세계대전과 바이마르공화국의 실패로부터 기인한 전 민족적인 좌절감을 신앙운동으로 극복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극우정당 나치와 결탁했다. 친나치 기독교도들은 ‘실용적 기독교 positives Christentum’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정치 권력화를 의미하

41) 베버: 같은 책, 365쪽.

42) 문용식: 자본주의의 세속화 과정과 기독교의 대응, 실린 곳: 학생생활연구 제8권, 충신대학교 2004, 59쪽 참조.

는 것이다. 교회의 정치 권력화란 교회가 국가의 한 부속기관이 되고, 신학은 국가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전략하게 되는 것이다. 신학은 항상 성서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1930년대 독일 기독교의 신학은 역사적 상황을 우선시했다. 이로써 독일 기독교는 나치정당이 필요로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선동책으로 이용되는 도구로 전략하기에 이른다.⁴³⁾

1930년대 나치정당의 우세는 독일의 혼란스러웠던 역사적·경제적 상황에 기인한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보다 늦은 1870년대에 이르러서야 산업혁명을 이루었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그 출발점이 늦었던 독일은 세계시장에 발맞추기 위해 급속도로 공업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깊어갔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베르사유조약에서 약속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은 독일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독일의 화폐 가치를 하락시켰다. 그 결과 1923년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달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⁴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독일의 충격은 컸지만 1924년도에 접어들어서는 미국 등의 외국자본이 유입되며 상대적으로 안정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1920년대 말까지는 독일 경제의 주요 분야인 화학, 전기 그리고 기계의 산업이 극대화되어 독일은 다시 세계시장의 경쟁에 참가할 수가 있었다. 독일의 수출액은 전쟁 전의 3분의 1 수준까지 회복하였고 새로 탄생된 대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투자 자본에 의존 하였던 독일의 변영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1929년 10월 뉴욕의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은 미국의 경제공황을

43) 추태화: 역사 상황과 교회의 정치권력화에 관한 연구-1930년대 독일교회를 배경으로, 실린 곳: 신학과 실천 32권, 한국실천신학회 2012, 781쪽 이하 참조.

44) 백경남: 바이마르 공화국-서구 민주주의 실험의 비극, 종로서적 1985, 171쪽 이하 참조.

가져왔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독일이 그 영향 안에 있었음은 물론이며 그 여파는 치명적이었다. 미국의 자본 환수는 독일의 경제를 파국으로 인도했고 독일의 모든 사업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며 1929년에는 독일의 실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 섰다. 이런 혼란으로 특히 중산층이 받는 타격이 컸는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독일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던 그들에게는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시련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 도피처로 실업자 구제, 노동자 복지 정책 등을 내세우는 극우정당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⁴⁵⁾ 이렇게 독일 전체가 강력한 정치가의 출현에 목마르게 된 시점에 등장한 히틀러는 독일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독일 전체에 퍼져있던 불안감을 독일 교회는 치유해 주지 못했고 점점 사회에서 격리되어갔다. 그런데 이때 나치당이 이러한 교회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나선다. 나치당은 당시 그들의 꼭두각시인 루드비히 뮐러 Ludwig Müller를 독일 루터교 총주교에 임명하고 교회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회를 조정했다. 이렇게 조직된 친나치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슬로건이 앞서 언급한 국가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실용적 기독교’이다.⁴⁶⁾

나치는 성서의 내용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왜곡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카이로스’ 개념이다. 카이로스란 신적 시간단위인 섭리의 시간을 의미하는 데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때”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친나치계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느님이 정한 시간에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는 것처럼 독일도 하느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며, 그 카이로스가 바로 나치가

45) 백경남: 같은 책, 176-180쪽 참조.

46) 추태화: 같은 글, 787쪽 이하 참조.

독제하고 있는 이때라고 주장했다. 즉 히틀러를 메시야로 신격화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그들은 하느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게르만 민족을 선택했으므로 우수 민족으로서의 독일이 열성 민족국가들을 해방시키고 평화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왜곡된 성서를 통해 그들은 선택받은 나라가 하느님이 선택한 왕에 의해 다스려지듯이 독일도 히틀러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당위성을 갖으며 도달한다.⁴⁷⁾

성서는 또 나치들이 그들의 슬로건을 만드는 데에도 악용된다. 하나라는 일체감을 강조한 슬로건인 “한 민족, 한 제국, 한 지도자 ein Volk, ein Reich, ein Führer”는 에페서소 4장 6절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⁴⁸⁾를 변형하여 악용한 것이다. 루터교 총주교 밀러 또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신앙, 하나의 새로운 독일교회 ein Volk, ein Glaube und eine neue deutsche Kirche”라는 말로 나치당과의 협력을 부르짖었다. 또한 전쟁을 하느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여겼다.⁴⁹⁾ 독일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문인 주기도문의 형식을 패러디한 히틀러에 대한 기도문이 있을 정도로 당시 독일에서 나치 국가는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으로, 지도자인 히틀러는 구세주로 여겨졌다.

아돌프 히틀러,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이시지,
당신의 이름은 적들을 두려워 떨게 하나이다.
당신의 왕국에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만이 땅위에서 법칙이 되게 하오시며

47) 추태화: 같은 글, 790쪽 이하 참조.

48)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민영재 편집, 대한성서공회 1999. (이후 성서 인용은 “복음명 장: 절”로 표시한다.)

49) 추태화: 같은 글, 794쪽 이하 참조.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투신하여 복종하기 원하옵는
당신 지도자의 지위를 통해 우리에게 명려하소서.
구세주 히틀러여 이를 언약하나이다.⁵⁰⁾

이렇게 기독교는 나치에 의해 오용되었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권력을 위해 나치와 결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독교가 역사상 최악의 길을 걸었던 나치시대는 오페라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 생성 후 불과 3년 후에 시작되었다. 이 작품이 이미 나치당이 우세를 보였던 시기에 집필되었다는 점과 브레히트가 독일 파시즘을 독일의 특수한 자본주의의 발전된 단계로 파악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⁵¹⁾, 이런 기독교의 역사적 상황이 그의 작품 안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0) 나인호: 정치종교로서의 나치즘-그 성과와 한계, 실린 곳: 역사문화연구 제2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4, 388쪽에서 재인용.

51) 윤시향: Bertolt Brecht의 반파시즘 연극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7쪽 참조.

II. 성서패러디를 통한 자본주의 비판

브레히트는 무신론자이지만 1928년 10월 1일 베를린의 잡지 인터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은 성서라고 대답할 정도로 성서 자체는 브레히트의 사유와 문학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스 팡스트 Hans Pabst의 연구에 의하면 브레히트의 작품 중에 성서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거나 성서의 비유가 연상되지 않은 작품은 극히 드물다. 브레히트에게 하느님에 관한 물음은 인간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물음과 맞닿아 있다. 그의 작품에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고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 있다.⁵²⁾

한스 팡스트는 『브레히트와 종교 Brecht und die Religion』에서 브레히트는 기독교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진 작가라고 이해하는데 여기서 물음이란 종교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 현실과 지배 질서를 합리화하는 반동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³⁾

팡스트는 브레히트의 종교관이 마르크스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본다.⁵⁴⁾ 마르크스가 무신론자임은 저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종교에 대한 입장이 신에 대한 존재론적인 부정인지 방법론적인 회의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잘못된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관념적인 환상으로 보았고 계급사회의 반영이며 계급적 지배에 봉사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1844) 서설에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서술한다. 이 말은 중

52) Vgl. Hans Pabst: Brecht und die Religion, Köln 1978, S. 22.

53) Vgl. ebd..

54) Vgl. Pabst: ebd., S. 222.

교가 사람들에게 이 세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편’처럼 작용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단지 내세에 대한 환상에 빠지게 한다는 뜻이다. 이는 종교가 사회비판적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⁵⁾ 마르크스는 후기에는 계급사회 유지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 비판에 중점을 둔다. 마르크스는 좋은 사회로의 변환이 이루어지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1905년에 발표한 논문 「사회주의와 종교 Sozialismus und Religion」에서는 종교를 정신적 억압의 형태로 보았고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며 내세의 영화를 생각하며 현세에서의 고통을 당연시하게 하고 인내하게 만들었다고 서술한다.⁵⁶⁾

브레히트는 성서텍스트를 변경하고 뒤집어 수용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그의 문학, 특히 드라마는 역설적으로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명한 것은 브레히트가 통상적인 견해와 지배적인 사고를 뒤집어보고 조롱한 작가였고, 종교에 대한 관점 역시 그러했다는 사실이다. 브레히트에게 종교자체나 교리,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눈 여겨 본 것은 종교적 인간들의 행동이었다.⁵⁷⁾

성서 모티브는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 작품은 총 20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브레히트의 텍스트에는 따로 막의 구분이 없고 20개의 장면들이 1-20까지의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다.⁵⁸⁾ 본고에서는 마하고니시의 발전

55) 박종천: 맑스주의자 블로흐와 몰트만의 관계, 실린 곳: 맑스주의와 기독교사상, 한울 1988, 87쪽 참조.

56) 이삼열: 맑스주의와 기독교의 비판적 관계, 실린 곳: 맑스주의와 기독교사상, 한울 1988, 10쪽 이하 참조.

57) 안 크노프: 베르톨트 브레히트, 이원양 옮김, 인물과 사상사 2007, 271쪽 참조.

58)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의 오페라 무대에서는 총 3막으로 1막(1-12), 2막(13-17), 3막(18-20)으로 연출된다.

단계에 따라 1-6장을 초기, 7-16장을 중기, 그리고 17-20장을 후기로 구분하고 이 순서에 따라 성서모티브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브레히트의 비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마하고니시의 설립 - ‘약속의 땅’의 허상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은 레오카디아 백빅 부인과 삼위일체 모세, 그리고 지배인 빌리가 트럭을 타고 가다 황량한 사막에서 멈추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들은 경찰관을 피해 도망 중인 범죄자들이다. 이 무리 중 한 명은 범죄자일 법한 매키 매서⁵⁹⁾가 아닌 ‘삼위일체 모세 Dreieinigkeitsmoses’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브레히트는 이미 등장인물의 이름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성서를 패러디하고 있다.⁶⁰⁾ 마하고니의 삼위일체 모세도 성서의 모세처럼 새로운 땅에 도달하게 되지만 그의 행적은 모세와 정반대되는 세속적 욕망에 따라 그려진다.

브레히트는 마하고니가 건설되는 장소 또한 구약성서의 출애굽기 19장 2절 “그들은 르피딴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곳 산 앞에 진을 쳤다.”를 연상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마르크스 사상을 이어 받았으나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한 에른스트 블로흐 Ernst Bloch는 이집트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히브리인들이 노예생활을 거부하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된 이야기인 출애굽기를 성서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구원의 사건이고 가장 복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⁶¹⁾ 블로흐는 『기독교안의 무신론 Atheism in

59) 『서푼짜리 오페라 Die Dreigoschenoper』(1928)의 등장인물인 강도단의 두목.

60) Vgl. Gunter G. Sehm, a. a. O., S. 86.

61) 홍근수: 맑스주의와 블로흐 몰트만의 관계, 실린 곳: 맑스주의와 기독교 사상,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1991, 99쪽 참조. 이하 에른스트 블로흐의 입장에

Christianity』에서 이 성서의 사건을 사회·경제적, 정치적 억압에서 탈출하여 해방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며 현상적 질서를 극복하고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현상 질서를 정당화 해주고 옹호해주는 종교와 신을 모두 거부하고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서술했다. 특히 욕을 극도의 시련을 인내한 모범적 인간으로 강조했던 교회의 해석을 거부하고 권위주의적 신에게 도전하고 반항하며 거부했던 인물로 해석했다.

원래의 목적지인 금이 나는 해변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왔던 길은 그 셋을 쫓는 경찰관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세 명의 무리 중 우두머리 격인 백빅 부인이 피를 내고, 그들은 그 곳에 자리를 잡기로 한다.

백빅: 좋아. 그럼 여기다 자리를 잡자. 지금 생각이 났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바에는 여기 아래에 자리 잡는 거야. [...] 강에서 금을 찾는 것보다 그 사내들에게서
옹아내는 게 더 쉬울 거야.
그러니 우리 여기다 도시를 하나 만들어
마하고니라고 하자.
그물망 도시란 뜻이지.[...]
어디서고 죽어라 일해야 하지만
여기 있는 건 쾌락.
왜냐하면 사내들의 쾌락이란 고통 안 받고 모든 걸 멋대로 하는 것.
그것이 황금의 본질이지.
진과 위스키 여자와 남자.
여기서 지내는 일주일엔
일 안하고 지내는 일곱날[...]

BEGBICK Gut dann bleiben wir hier. Es ist mir eingefallen: wenn wir nicht hinaufkommen können, werden wir hier unten bleiben.
[...] Ihr bekommt leichter das Gold von Männern als von Flüssen!

대해서는 홍근수의 「맑스주의와 블로흐 몰트만의 관계」 99쪽 이하 참조.

Darum laßt uns hier eine Stadt gründen
Und sie nennen Mahagonny
Das heißt: Netzstadt![...]
Überall gibt es Mühe und Arbeit
Aber hier gibt es Spaß.
Denn es ist die Wollust der Männer
Nicht zu leiden und alles zu dürfen.
Das ist Kern des Goldes.
Gin und Whisky
Mädchen und Knaben,
Und eine Woche ist hier: siben Tage ohne Arbeit [...]⁶²⁾

이렇게 하여 향락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 마하고니가 세워진다. 백
빅이 묘사하는 마하고니는 하느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젓과 꿀’(출애굽기 3:8)이 흐르는 곳이 아닌 ‘진과 위스키’
가 넘쳐나는 쾌락의 유토피아이다. 이곳은 노동의 고통이 없는 세
계이며 쾌락을 도구로 남자들의 돈을 갈취하려는 의도로 세워진
도시이다.

백빅: 바 카운터를 설치하라!
저기 고무나무 밑에.
도시가 되는 것이다.
도시 한 복판이 되는 것이다.
이름은 <부자가 되는 호텔>.

BEGBICK Stellt den Bartisch auf

Dort unterm Gummibaum:
Das ist die Stadt.
Das ist ihre Mitte
Und sie heißt: »Das Hotel zum Reichen Manne«.⁶³⁾

62) Brecht: Aufstieg und Fall der Stadt Mahagonny, Berlin 1968, S. 8. (앞으로 이
판본의 인용은 ‘Mahagonny’로 줄여서 표기함)

“부자가 되는 호텔”이 중심에 위치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마하고니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세계이다. 사막에 지어진 도시이며 한 가운데에 호텔이 위치하고 쾌락을 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곳은 라스베가스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환락도시는 보통 노동자들이 돈을 내고 쾌락의 욕구를 분출하는 공간이다. 브레히트는 마하고니를 환락도시로 설정하여 이 시의 목적이 돈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⁶⁴⁾

이 장면에서도 어김없이 성서 패러디가 행해지는데 위의 백빅의 대사 중 “바 카운터”는 탈출기 25장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성소의 제사상을 만드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마하고니에서는 ‘성스러운 제사상’이 ‘쾌락의 바 카운터’로 격하되는 것이다.⁶⁵⁾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기구들도 내가 보여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라.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이 척 반, 나비 일 척 반, 높이도 일 척 반으로 하여라.⁶⁶⁾

Und sie sollen mir ein Heiligtum machen, daß ich unter ihnen wohne. Wie ich dir ein Vorbild der Wohnung und alles ihres Geräts zeigen werde, so sollt ihr's machen.

Du sollst auch einen Tisch machen von Akazienholz; zwei Ellen soll seine Länge sein und eine Elle sein Breite und anderthalb Ellen seine Höhe.⁶⁷⁾

63) Mahagonny, S. 8.

64) Vgl. Patty Lee Parmalee: Brecht's America,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1, S. 195.

65) Vgl. Sehm: a. a. O., S. 87.

66) 출애굽기 25: 8-10.

67) Luther-bibel 1912, Das 2. Buch Mose(Exodus).

위와 같이 쾌락의 도시 마하고니는 구약성서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축복받은 땅’과 동일시되며 회화화된다.

2장은 마하고니가 건설 된지 몇 주일 내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초기산업사회의 상어 die ersten Haifische”⁶⁸⁾들이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니와 여섯 여자들이 ‘위스키바’, ‘남자’, ‘달러’로 상징되는 마하고니를 향해 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들은 영어로 된 <알라바마송 Alabama Song>을 부르며 등장한다. 의도적으로 영어로 쓴 이 노래를 통해 작가는 미국자본주의사회를 겨냥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⁶⁹⁾ 제니와 여섯 여자들은 전통사회를 대변하는 ‘좋은 엄마’와 작별 후, 향락을 상징하는 ‘위스키’를 찾고,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인 ‘남자’를 찾는다. 이제는 ‘달러’를 갖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 여기서 가까운 위스키바로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

오, 예쁜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

오, 달러를 벌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달러를 못 벌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작별을 고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좋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

Oh, show us the way to the next whisky-bar [...]

Oh, show us the way to the next pretty boy! [...]

Oh, show us the way to the next little dollar! [...]

For if we don't find the next little dollar

I tell you we must die

We now must say good-bye

68) Mahagonny, S. 10.

69) 국내에서 출판된 번역본에서도 작가의 의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라바마송」은 영어 그대로 번역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We've lost our good old mamma [...]70)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 집필 당시의 1920년대 미국은 자본주의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논리가 팽배해 있던 시기였다.⁷¹⁾ 또한 당시 미국인들은 자본주의가 좌파와 우파를 막론 모두가 꿈꾸는 유토피아로 이끌 수 있다고 여겼다. 그 대표적인 이론가인 앨런 더얼리 Alan Dawley는 자신의 저서 『정의를 위한 투쟁 Struggle for Justic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Liberal State』에서 처음으로 ‘유토피안 자본주의 Utopian Capitalism’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달이 변영을 가져오고 자본이 모든 계급을 변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개념이다.⁷²⁾ 당시 내셔널시티뱅크 회장이었던 찰스 미셸은 “자본주의 산업현장에서 한 혁명이 일어났다. 즉 모든 계급이 자본주의의 열매에 보다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 법의 운영으로 가난이 추방되는 날을 보고자 하는 유토피안들의 꿈의 실현이 더욱 가까워졌다.”⁷³⁾고 말했다. 이렇게 그들은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확신했지만 이내 과잉된 자본과 수요자층의 부재로 자본이 순환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를 지탱해 주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며 대공황이 찾아오고 자본주의의 환상은 깨져 버린다. 미국은 당시 독일의 혼란스러운 상태와 대비되는 곳으로서 유토피아로 독일민족을 위한 파라도이스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Wilhelm Liebknecht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에게도 미국은 새로운 미래로 여겨지며 사회주의적인 미래국가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70) Mahagonny, S. 10 f.

71) 김형곤: 1920년대 미국 자본주의의 성격, 실린 곳: 동서사학 제4호 1권, 한국동서사학회 1998, 298쪽 참조.

72) 김형곤: 같은 글, 312쪽에서 참조.

73) 김형곤: 같은 글, 313쪽에서 참조.

보이기도 했다.⁷⁴⁾ 또한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미국 자본주의에 대해 감탄하며 경제의 중심지가 미국이 될 것임을 예견한다.⁷⁵⁾ 정치적 우파는 물론 좌파진영에서까지도 극찬했던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실패는 브레히트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브레히트가 쾌락의 도시이자 유토피아인 마하고니에 미국의 이미지를 더한 의도를 이러한 배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낙원도시를 표방한 마하고니의 소문이 여러 대도시에 퍼지는 장면이 3장에 펼쳐진다.

남자들: 대도시에 그득한 건 시궁창
속은 텅 비었고 피어나는 건 매연.
그곳은 쾌락을 모르는 우리가 사는 곳.
시들어 가는 인간, 썩어 가는 시궁창.

[...]

지배인 빌리: 오늘날 대도시에는 불만에 찬 사람들이 많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황금의 도시 마하고니

DIE MÄNNER Unter unsern Städten sind Gossen
In ihnen ist nichts und über ihnen ist Rauch.
Wir sind noch drin. Wir haben nichts genossen.
Wir vergehen rasch und langsam vergehen sie auch.

[...]

WILLY DER PROKURIST Zu unserer Zeit gibt es in den großen
Städten viele, denen es nicht mehr gefällt. Solche gehen nach
Mahagony, der Goldstadt.⁷⁶⁾

대도시에서 기계처럼 일만 하는 노동자들의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74) 홍근수: 같은 글, 112쪽 참조.

75) 홍근수: 같은 글, 113쪽 참조.

76) Mahagony, S. 12.

빌리는 마하고니로 오라고 선전한다.

4장에서는 알라스카에서 7년간 벌목꾼으로 일해 번 돈을 가지고 부푼 마음으로 마하고니로 향해가는 네 남자, 파울, 야콥, 하인리히, 요셉이 등장한다. 군터 G. 제엠 Guter G. Sehm은 벌목꾼이라는 직업도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에 착안하여 그 비슷한 업종의 직업으로 설정했다고 보았다.⁷⁷⁾

가자, 마하고니로!

[...]

말고기와, 여자와 살이 있는 곳.

위스키와 포커판도 있다.

[...]

오늘 우리 셔츠 속에는

지폐가 불룩하니까.

[...]

매매매매매독은

거기가면 치료될 것.

Auf nach Mahagonny!

[...]

Dort gibt es Pferd- und Weiberfleisch.

Whisky und Pokertisch.

[...]

Denn wir haben heute hier

Unterm Hemde Geldpapier

[...]

Die Zi-zi-zi-zi-zi-zivilis

Die wird dort geheilt.⁷⁸⁾

네 벌목꾼이 돈을 번 이유는 단지 쾌락을 위해서임을 알 수 있는

77) Vgl. G. Sehm: a. a. O., S. 92.

78) Mahagonny, S. 14.

대목이다. 여자와 음식 그리고 도박이라는 쾌락을 위한 부의 축적은 전통적 기독교 사회에는 엄격히 금기시 되었던 것이다. 오직 신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도구였던 노동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노동으로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네 명의 벌목꾼들은 ‘매독’으로 대변되는 시민사회의 아픔이 마하고니에 가면 치료될 것이라는 기대를 노래한다. ‘치료’란 기독교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위안과 치유를 의미한다. 파라다이스라는 탈을 쓴 마하고니가 제공하는 치료제는 위스키와 말고기, 여자라는 쾌락이다.

5장에서는 마하고니 선착장에 도착한 네 명의 벌목꾼들을 설립자들이 맞이한다. 마하고니의 설립자들은 제니와 여섯 여자들을 앞세워 몸값을 흥정한다.

야콥, 하인리히, 조: 알래스카의 7년

그것은 추위 돈을 뜻하지.

나오너라, 마하고니의 미녀들아.

우린 마음에 들면 현금지불이다.

제니: [...]아이, 생각 좀 해 보세요, 삼십 달러로 뭘 사겠어요?

[...] 어머니 종종 내게 말했지요

<애야, 나처럼 몇 푼 안되는

달러 지폐에 팔려가지 말아라.

보렴, 내 꼴이 뭐가 되었나.>

JAKOB, HEINRICH, JOE Sieben Jahre in Alaska

Das ist Kälte, das ist Geld

Heraus, ihr Schönen von Mahagonny

Wir zahlen bar, wenn's uns gefällt.

[...]

JENNY [...] Ach bedanken Sie, was man für dreißig Dollar kriegt!

[...] Sie sagte oft zu mir:

»Mein Kind, verkauf dich nicht

Für ein paar Dollarnoten, so wie ich es tat
Schau dir an, was aus mir geworden ist.«⁷⁹⁾

위의 대화는 얼핏 단순한 매춘부와 손님 의 가격 흥정으로 보이지만 제니의 대사 속 어머니의 한탄은 미국의 자본으로 잠시 황금시대를 보냈던 독일이 결국에는 파국을 맞은 독일의 상황을 비꼬고 있다.

백빅 일당과 제니가 별목꾼들을 마하고니로 유인하고 있는 중에도 이미 마하고니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조: 저건 뭐하는 사람들이야?

[...]

백빅: 바보, 멍청이들! 배를 타러 달려가네.

저들 가방엔 아직 돈이 가득 차 있는데.

못된 족속들 같으니라구! 유머가 없어.

야콥: 재들이 왜 가지? 이상하군.

좋은 곳이면 머무르는 법인데, [...]

JOE Was sind das für Leute?

BEGBICK *Schimpft ihnen nach*

Dummköpfe, Quardratschädel! Da laufen sie hin auf das Schiff.

Und ihre Taschen sind noch voll von Geld. Schlechte Rasse!

Leute ohne Humor!

JAKOB Das ist seltsam, daß die weggehn.

Wo es schön ist, da bleibt man.[...]⁸⁰⁾

작가는 마하고니를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 도시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백빅의 돈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는 대사로 마하고니 설립의 목적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작품의 1-6장 ‘마하고니시의 설립’ 장면에서는 설립자들이 사람

79) Mahagonny, S. 18 f.

80) Mahagonny, S. 20.

들로 하여금 마하고니를 유토피아로 여기게끔 하고 그 곳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합리화·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사회구성체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적 기제, 즉 유토피아적인 과거의 낙원이나 황금시대에 대한 기억을 이용하여 현실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려고 하는데 이는 기독교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교리를 설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⁸¹⁾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 통치로 넘어갈 때에 독일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기독교의 힘을 빌린 것과는 닮아있다.

마하고니는 성서의 ‘약속된 땅’인 낙원의 모습을 하고 있고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쾌락으로 치유받기 위해 마하고니로 몰려오지만 이내 그들이 상상했던 낙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하고니가 결코 유토피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마하고니시의 변영 - 십계명의 전도

중기 장면이 시작되는 7장과 8장에서는 사람들이 마하고니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백빅, 빌리, 모세는 이제는 마하고니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마하고니를 버리고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범죄자인 그들을 펜사콜라까지 추격해온 경찰들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다.

이때 벌목꾼들 중 한명인 파울도 마하고니에 지루함을 느끼고 떠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백빅의 금지 조항들로 인하여 도시가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화롭기 때문이다. 알래스카에서 7년 동안 오

81) 김덕기: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서의 유토피아적 특성, 실린 곳: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생각의 나무 2002, 87쪽 이하 참조.

직 유토피아 도시에서의 무한한 쾌락을 기대하며 일한 그에게 마하고니는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세 명의 벌목꾼들이 떠나려는 파울을 만류하여 파울은 그대로 마하고니에 머무르게 된다.

마하고니의 안정과 조화는 “제발 내 의자를 조심스럽게 다루시오. *Schonen Sie gefälligst meine Stühle.*”, “떠들지 마시오. *Machen Sie keinen Krach.*”, “외설스런 노래를 삼가시오. *Vermeiden Sie anstößige Gesänge*”⁸²⁾등의 금지조항들 덕분인데, 제엠 G. Sehm은 이런 백빅의 금지조항들을 구약성서에서 모세의 10계명을 상징한다고 보았다.⁸³⁾ 탈출기 19-20장에서 야훼가 십계명을 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한 것과 같이 백빅은 마하고니에서의 쾌락을 약속하며 그 대신 금지조항을 내세운 것이다. 이 장면에서는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을 쥐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규칙들이 모세의 십계명처럼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패러디하고 있다.

지겨우리만치 평화롭던 마하고니에 허리케인이 다가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허리케인은 『마하고시의 변영과 몰락』 작품에서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마하고니 모습이 11장에 그려진다. ‘신의 위협으로서의 허리케인’⁸⁴⁾은 구약성서의 최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상징하는 ‘아세나와 펜사콜라’를 파괴한다. 마하고니에도 곧 허리케인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는데 파울만이 웃

82) Mahagonny, S. 30.

83) Vgl. Sehm: a. a. O., S. 85.

84) Vgl. Sehm: a. a. O., S. 86.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요한묵시록 18:21)

고 있다. 파울은 백빅의 금지조항들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파울: 유혹당하지 말라 너희들.

윤회 따윈 없다.[...]

돈 있는 자 지나가면

머리통을 내리치고 그 자의 돈을 취하라.[...]

집에서 살고 싶으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

침대에 누워라.

그 집 부인이 들어오면 같이 자라.[...]

PAUL Laßt euch nicht verführen.

Es gibt keine Wiederkehr. [...]

Wenn einer vorübergeht und hat Geld

Schlag ihn auf den Kopf und nimm dir sein Geld: [...]

Willst du wohnen in einem Haus

Dann geh in ein Haus

Und leg dich in ein Bett

Wenn die Frau hererinkommt, beherberge sie.⁸⁵⁾

이는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⁸⁶⁾가 완벽하게 전도된 것이다. 동시에 위 내용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시민이 살아남기 위해 취하도록 강요되는 행동양식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백빅은 파울의 이러한 항의에, 어차피 허리케인이 도시를 망가뜨릴 것이니 마음대로 하라며 허락한다. 하지만 허리케인의 경로가 바뀌어 마하고니를 비껴가고 도시는 위기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파울의 항의와 실제로 오지도 않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85) Mahagonny, S. 38.

86) 출애굽기 20.

금지조항과 본래의 시스템이 와해되었고, 이 모습은 마하고니가 얼마나 견고하지 않은 병약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⁸⁷⁾ 브레히트는 이 장면에서 마하고니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몰락할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융성한 후에 파멸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처럼 허리케인이 비껴간 이후 마하고니는 최고이자 최후의 호황기를 맞이한다. 이제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이 다음과 같이 마하고니시의 법의 기초가 된다.

합창: 첫째는 먹어치우는 것, 잊지마
둘째는 사랑의 행위
셋째는 권투시합을 잊지 말 것.
넷째는 폭음, 계약에 따르면
무엇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건
여기서는 모든 게 허용된다는 점이야.

CHOR Erstens, vergeßt nicht, kommt das Fressen
Zweitens kommt der Liebesakt.
Drittens das Boxen nicht vergessen
Viertens Saufen, laut Kontrakt.
Vor allem achtet scharf
Daß man hier alles dürfen darf.⁸⁸⁾

위 네 가지 조항들은 마하고니에서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13장에서는 야콥이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먹는 기괴한 모습의 무대가 펼쳐진다. ‘식욕’이라는 쾌락에 지배된 야콥은 자본주의 기업을 상징한다. ‘먹기Fressen’는 자본주의의 과잉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경제를 극명하게 보여

87) G. Sehm: a. a. O., S. 88.

88) Mahagonny, S. 44.

주는 소재로 쓰인다.

떡보 야콥: 난 지금 송아지 두 마리를 먹어치웠고
또 한 마리를 먹고 있다.
모두가 다 양에 차지 않으니
나 자신을 먹어버렸음 좋겠다.

[...]

여보게들, 하나 더...
(죽어 넘어진다.)

JAKOB DER VIELFRASS Jetzt hab ich gegessen zwei Kälber
Und jetzt esse ich noch ein Kalb
Alles ist nur halb
Ich äße mich gerne selber.

[...]

Brüder, gebt mir noch...
*Er fällt tot um.*⁸⁹⁾

야콥은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송아지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분의 송아지를 먹음으로써 죽음에 이른다. 이 장면에서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해 과잉 생산된 자본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공황이라는 결과를 낳은 자본주의의 실패를 연상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잉여가치로의 자본축적에는 노동자 계급의 궁핍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⁹⁰⁾ 브레히트는 1931년 『시도』 2호에 실린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에 관한 주석」에서 이 장면은 무대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야콥이 죽을 정도로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결과를 떠올릴 수 있기에 선동적이라고 서술한다.⁹¹⁾ 즉 자본의 편

89) Mahagonny, S. 44.

90) 칼 마르크스: 자본론 제1권,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1, 881쪽 참조.

91) Vgl. Bertolt Brecht: Anmerkungen zur Oper Aufstieg und Fall der Stadt

향으로 인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창가 장면이 등장한다. 브레히트의 작품에서는 여성이 ‘창녀’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하고니에서의 창녀는 브레히트의 여느 초기 작품들에서의 에로틱한 모티브와는 다르다. 초기 브레히트의 여성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편협했다. 실제 생활에서 보여준 여성편력도 굉장했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 여성은 대부분 성적인 면만이 강조된 소재로 활용되었다. ‘창녀’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작품 속의 여성들은 남성에서 예속되어있는 성적 노리개로 치부되었다.⁹²⁾ 이러한 브레히트의 생각은 1926년에 마르크스주의를 접하며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작품 속의 여성등장인물들은 상징적인 계급성을 갖게 된다. 브레히트는 ‘계급’에 대해 인식하고 여성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기에 이른다.⁹³⁾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모든 억압의 근원인 계급체계의 물질적 토대로 보았고 여성 억압도 그 결과로 보았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남성의 자본력이 상승하였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을 파는 행위는 브레히트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본주의적 상품화’의 원형이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인간의 자아소외를 의미한다.⁹⁴⁾ 브레히트는 그의 작품생활의 후기까지도 창녀모티브를 계속 사용한다. 초기작품인 『도시의 정글 속에서 Im Dickicht der Städte』(1923)의 마리, 제인 같이 성적인 도구로만 사용되고 버려

Mahagonny, a.a.O., S. 87.

92) 『바알 Baal』(1922)의 등장인물인 소피, 에밀리, 요한나는 바알과 성적인 관계로만 맺어져있다.

93) 이호경: 젠더 분석 틀로 본 브레히트의 여성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65쪽 참조.

94) 김기선: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작품분석, 실린 곳: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 성신여대출판부 146쪽 참조.

지는 수동적인 여성에서 후기 작품인 『사천의 선인 Der gutr Mensch von Sezuan』(1923)의 셴테 같은, 심지어 “이상화된 여성들의 형상”⁹⁵⁾으로까지 발전한다.⁹⁶⁾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에서 창녀 제니는 그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녀는 남성에게 억압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체제아래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상품화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자본에 의해 억압받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매춘은 단지 남성의 생물학적인 욕망에 의해 유래했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욕망의 형태이다.⁹⁷⁾ 여성의 몸은 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에게 맞춰 생산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착취가 일반적인 다른 소비와 다를 것이 없다.

14장에서 마하고니의 남자들은 사창가 앞에 줄을 길게 서있고 방 안에서 파울과 제니가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이 장면은 1927년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 오페라 대본을 받은 본 유니버살 출판사 사장 에밀 헤르츠크 Emil Herzka가 좀 더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극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해옴에 따라 브레히트가 첨부한 것이다. 이 듀엣은 두루미 한 쌍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서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풍자하고 있다.

제니: 저 학이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나는 거 봐요

파울: 배경엔 구름이

[...]

제니: 마치 학과 구름이 잠시 밖에 날 수 없는

하늘을 저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이

95) 이호경: 같은 글, 77쪽에서 재인용.

96) 이호경: 같은 글, 77쪽 참조.

97) 다자키 히데야키: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옮긴 이: 김정자, 삼인 2006, 105쪽 이하 참조.

[...]

파울: 그렇게 바람이 그들을 무속으로 유인하겠지

JENNY Sieh jene Kraniche in großen Bogen!

PAUL Die Wolken, welche ihnen beigegeben

[...]

JENNY Daß so der Kranich mit der Wolke teile

Den schönen Himmel, den sie kurz befliegen

[...]

PAUL So mag der Wind sie in das Nichts entführen.⁹⁸⁾

얀 크노프 Jan Knopf에 따르면 이 노래는 사랑과 환상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듀엣의 내용에 등장하는 “구름”은 그 당시 브레히트에게는 허무를 상징한 것이며 페터 본 마트 Peter von Matt에 의하면 파울이 말하는 무(無)의 공간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아무것도 아닌 곳(Nirgendwo), 즉 허상의 세계이다.⁹⁹⁾ 이 노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은 허상일 뿐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셋째로 조와 모세의 권투 장면이 이어진다. 이 내기 권투는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상징한다.

조: 여러분, 우리는 K.O.로만 끝장이 나는

권투시합을 열려고 합니다.

그것도 삼위일체 모세와 나,

알래스카 늑대 조와의 경기입니다.

JOE Wir, meine Herren, veranstalten ein großes

Preisboxen, endend nur mit dem K.o.

Und zwar tritt an Dreieingkeitmoses

Gegen mich, den Alaskawolf-Joe.¹⁰⁰⁾

98) Mahagonny, S. 48.

99) 1997년 성신여대 독문과 강연 Knopf: Das Liebesgedicht ohne Libe 참조.

내기권투에서 돈을 거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부를 추구할 때에 나타나는 ‘이기적인 동기’에 있다. 그리고 브레히트는 자본가들 각자의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과정에서 결국은 소시민만 희생된다는 것을 K.O.로 죽고 마는 조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차별성이나 차이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우승열패의 원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본주의 냉엄한 현실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가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한바탕 계속되는 웃음소리 *Großes, anhaltendes Gelächter*.”¹⁰¹⁾를 내며 사라진다. 이렇게 권투장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시된 배금주의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넷째로 마하고니의 법칙을 보여주는 것은 ‘폭음’ 장면이다. 물질주의를 따라 살아가다 인생의 허무를 느낀 파울은 술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술을 사며 배금주의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한없이 추락한 현실을 한탄한다.

파울: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 살가죽이 벗겨지지.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앉아서

자기 살가죽을 팔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살가죽이란 언제고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PAUL Auf der See

Und am Land

Werden allen Leuten ihre Häute abgezogen

Darum sitzen alle Leute

Und verkaufen ihre Häute

Denn die Häute werden jederzeit mit Dollars auf gewogen.¹⁰²⁾

100) Mahagonny, S. 50.

101) Mahagonny, S. 53.

마하고니의 설립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돈이다. 즉 마하고니가 약속했던 유토피아 세계는 돈을 전제로 한다. 끝없는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한정으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마저 그 도구로 삼게 된다. 하지만 마하고니의 남자들은 스스로가 상품화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술값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자들: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그러니 신선한 살가죽 소비가 엄청나지.

언제나 자기 살을 물어뜯는 거야.

그런데 술값은 누가 내나?

왜냐하면 살가죽 값은 싸도

위스키 값은 비싸거든.

DIE MÄNNER Auf der See

Und am Land

Ist drum der Verbrauch an frischen Häuten ungeheuer.

Immer beißt es euch im Fleische

Doch wer zahlt euch eure Räusche?

Denn die Häute, die sind billig

Und der Whisky, der ist teuer.¹⁰³⁾

이는 결국 자본에 의한 종속을 뜻한다. 인간의 ‘살가죽’보다 ‘위스키’값이 비싸다는 남자들의 한탄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백빅은 파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앞서 내기권투에서 재산을 탕진한 파울은 술값을 지불할 수가 없고 결국 체포되고 만다.

위와 같이 마하고니의 법칙 네 가지는 모두 물신화된 자본주의

102) Mahagonny, S. 54.

103) Mahagonny, S. 55.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 조안 B. 시올라 Joanne B. Ciulla는 『일의 발견 The Working Life』(2000)에서 칼뱅시대에 사람들의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믿음이 현재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 태어났다’는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¹⁰⁴⁾ 사회학자 다니엘 벨 Daniel Bell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연원인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는 현대에 접어들면서 향락주의를 열광적으로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 대신 향락을 위한 소비주의 시대가 도래 하게 된다. 사람들은 소비하기 위해 노동하기 시작한다. 이는 베버가 분석한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와 극명하게 대조된다.¹⁰⁵⁾ 쾌락이라는 아편에 중독된 마하고니 사람들은 쾌락을 위한 끊임 없는 소비를 위해 자신의 살가죽까지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3. 마하고니시의 몰락 - 부활이 없는 수난

18장에서는 마하고니 법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파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파울의 재판과 처형으로 세속적인 수난의 모습을 보여준다.¹⁰⁶⁾ 판사석에는 백빅, 변호사석에는 지배인 빌리가 앉아 있고 삼위일체 모세는 사람들에게 재판 관람권을 팔고, 바로 이어서 검사역할을 한다. 모세는 설립 장면에서 자본, 권투 장면에서 폭력을 18장에서 권력을 상징하며 자본주의의 삼위일체를 완성한다.

104) 조안 B. 시올라: 일의 발견, 안재진 옮김, 다우 2005, 85쪽 참조.

105) 다니엘 벨: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김진욱 옮김, 문학세계사 1990, 102쪽 이하 참조.

106) Vgl. Klaus-Detlef Müller: Bertolt Brecht: Epoche-Werk-Wirkung, München 1985, S. 142.

첫 번째 재판은 살인자 토비 히긴스에 관한 것이다. 검사 모세의 논고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와 판사 백빅 사이에서는 뇌물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손짓이 오고 간다. 결국 살인자 토비 히긴스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가 예수와 함께 재판받던 강도 바라빠를 풀어주는 장면을 연상시킨다.¹⁰⁷⁾

이어서 파울의 재판이 진행된다. 파울은 하인리히와 제니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백빅과 그 일당들은 파울에게서도 뇌물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하지만 파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다. 검사 모세는 파울이 “도시 전체를 유혹하였고, 안정과 조화를 파괴시켰다. Und hat verführt die ganze Stadt. Und vernichtet Ruhe und Eintracht!”¹⁰⁸⁾라는 죄목으로 기소한다. 이는 루가복음 2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발당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파울은 돈이 없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로¹⁰⁹⁾ 사형선고를 받고 만다.

파울은 돈으로 즐거움을 사려고 마하고니에 들어온 순간 이미 자신의 몰락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파울은 요한 19장 28절을 패러디한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Gebt mir doch ein Wasser!”¹¹⁰⁾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처형된다.

107)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 과월절이 되면 나는 너희의 관례에 따라 죄인 하나를 놓아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악을 쓰며 “그자는 안 됩니다. 바라빠를 놓아주세요.”하고 소리질렀다. 바라빠는 강도였다. (요한 18:39-40)

108) Mahagonny, S. 68.

109) Wegen Mangel an Geld / Was das größte Verbrechen ist / Das auf dem Erdenrund vorkommt. (Mahagonny, S. 70.)

110) Mahagonny, S. 76.

브레히트는 가장 공정해야할 법정조차 부패된 모습을 통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인 자본주의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의 마하고니는 불타는 지옥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마하고니의 멸망 전 몇 주일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제 각각의 목표를 내세워 데모를 하고 있다. 1행렬에서 7행렬까지 그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이 풍자되고 있다.

1행렬은 백빅, 빌리, 모세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이 들고 있는 표지판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

고물가를 위해, 모두에 대한 모두의 투쟁,
우리 도시의 혼란한 상태를 위하여
황금시대 지속을 위하여
FÜR DIE TEUERUNG
FÜR DEN KAMPF GEGEN ALLE
FÜR DEN CHAOTISCHEN ZUSTAND
DES GOLDENEN ZEITALTERS¹¹¹⁾

이는 자본주의가 유토피아처럼 생각되었으나 그 결과는 대혼란으로 막을 내린 1920년대 상황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쾌락의 자본주의 도시로 설정된 마하고니가 번영했다 몰락해가는 과정은 독일이 자본주의로 인해 누린 잠깐의 ‘황금기’와 이내 다시 찾아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독일의 카오스적인 상태와도 닮아있다.

사유재산 지지
타인재산 몰수 지지,
내세에 존재하는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현세에 존재하는 재산의 불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111) Mahagonny, S. 77.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랑을 위하여
 사물의 자연스러운 무질서를 위하여
 황금시대의 지속을 위하여
 FÜR DAS EIGENTUM
 FÜR DIE ENTEIGUNG DER ANDEREN
 FÜR DIE GERECHTE VERTEILUNG DER
 ÜBERIDISCHEN GÜTER
 FÜR DIE UNGERECHTE VERTEILUNG
 DER IRDISCHEN GÜTER
 FÜR DIE LIEBE
 FÜR DIE KÄUFLICHKEIT DER LIEBE
 FÜR DIE NATÜRLICHE UNORDNUNG DER DINGE
 FÜR DEN FORTBESTAND DES GOLDENEN ZEITALTERS¹¹²⁾

2행렬이 외치는 구호는 자본주의 체제의 마하고니에서 ‘공정함’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이상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내세에 존재하는 신은 현세에 문제에 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모든 희망과 공정함은 내세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내세의 위로를 위해서 사람들은 현세에서 불평등을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¹¹³⁾

이어서 등장하는 3행렬은 ‘부자들의 자유를 위하여, 힘없는 자를 짓밟는 용감한 행위를 위하여, 살인자의 명예를 위하여, 부정부패의 위대함을 위하여, 비열한 행동의 영원한 존속을 위하여, 황금시대의 지속을 위하여’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아래와 같은 노래를 부른다.

왜냐하면 동침하듯 언젠가는
 모두 누워 자빠지게 될 것이고
 덮어주는 사람 하나 없으리니
 짓밟는 자, 그것은 나,

112) Mahagonny, S. 78.

113) Vgl. Pabst: a. a. O., S. 116.

짓밟힌 자, 그것은 너!
 Denn wie man sich bettet, so liegt man
 Es deckt einen keiner da zu
 Und wenn einer tritt, dann bin ich es
 Und wird einer getreten, dan bist's du.¹¹⁴⁾

이 노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강조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상대방보다 위에 올라서야 이 사회에서 버텨낼 수 있기에 비열한 행동과 부정부패는 당연시된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개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내재 되어 있는 특성이므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¹¹⁵⁾

4행렬은 여섯 여자들이 마치 성스러운 유물처럼 파울 아커만의 시계와 권총, 수표책을 올려놓은 면으로 된 쿠션을 들고 막대기 위에는 그의 셔츠를 달고 나와서 알라바마송의 후렴구를 부르는데 파울을 마치 자본주의 체제에서 수난당한 성인처럼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5행렬은 파울의 시체를 들고 있고, 그 뒤로는 <법정을 위하여>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이 보인다. 파울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에게 봉사하여 공정함을 잃은 마하고니 법정의 희생자이다. 곧 파울의 시체는 망가져버린 자본주의 체제를 상징한다.¹¹⁶⁾

이 행렬의 사람들은 “식초를 갖다 줄 수도 있지. 그의 얼굴에 발라줄 수 있지”라고 외치는데 이는 요한복음 19장 29절을 패러디했으며,¹¹⁷⁾ “얼굴을 닦아 줄 수도 있지”라는 대사는 예수가 십자가

114) Mahagonny, S. 78.

115) 이경재: 자본주의의 구조적 폭력성, 실린 곳: 인문과학,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227쪽 이하 참조.

116) Vgl. Klaus-Detlef Müller: a. a. O., S. 142.

117) Vgl. G.Sehm: S. 93.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요한 19:29)

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를 때 그의 얼굴을 닦아준 베로니카의 일화가 연상되는 대목이다.¹¹⁸⁾ 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소용없는 것”이라 하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묘사된 파울은 부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6행렬이 들고 나온 <어리석음을 위하여>라고 쓴 뜻말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브레히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7행렬은 <황금시대의 지속을 위하여>라는 뜻말을 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위대한 시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위대한 시대를 잊을 수도 있겠지만 죽은 사람에겐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외치고 마지막으로 모두 다 같이 “우리한테도, 너희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소용이 없는 것 Können uns und euch und niemand helfen”¹¹⁹⁾이라고 한탄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품고 마하고니로 왔던 사람들은 중국에 다다라서야 그것이 허구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본주의 체제의 유토피아적인 환상으로 설립된 마하고니는 자본주의 체제가 내재한 온갖 불평등과 비정상적인 쾌락의 추구로 인간성이 말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희화화된 도시 마하고니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맞이한다.

Es stand da ein Gefäß voll Essig; sie aber filten einen Schwamm mit Essig, legten ihn um einen Ysop und hielten es ihm an den Mund. (Johannes 19:29)

118) Vgl. G. Sehm: S. 94.

119) Mahagonny, S. 80.

결론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20세기 독일이 낳은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서 사후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번하게 연구되는 작가이다. 브레히트는 초기 무정부주의적인 성격에서 1926년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접한 후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여 좌파작가로 활동한다. 1933년 나치 집권 이후에 브레히트 작품은 나치의 야만성에 대한 비판을 핵심 주제로 한다. 나치시절 미국에서 망명했던 그는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동독을 선택한다. 하지만 동독공산당의 관료주의와 인민을 돌보지 않는 정부에 실망을 하고 사망 전까지 동독 정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예술가는 사회에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던 브레히트는 그의 작가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참여적이며 사회비판적이었다.

『마하고니시의 번영과 몰락』의 주제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며,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를 합리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작품 집필 당시 독일은 ‘황금의 20년대’라는 호황을 이루다가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독일은 카오스 상태에 빠져 나치즘에 동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찰나였으며 기독교마저 그 본분을 잊은 채 나치의 이데올로기에 명분을 심어주었다.

브레히트는 이러한 시대상 비판의 방법으로 성서 패러디를 택한다. 서양에서 기독교는 그들의 정신적 기반이며 베버에 따르면 자본주의 정신의 연원이기도 하다. 특히 종교개혁의 진원지인 독일에서 성서의 의미란 더욱 특별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빌헬름 괴스만 Wilhelm Gössmann은 루터의 독일어성서 번역이 독

일문학계에 문학적 응용을 가속화 시켰다고 주장한다.¹²⁰⁾ 브레히트도 그의 많은 작품에서 성서를 패러디하고 있다. 그 중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이 특별한 이유는 배경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모티브가 성서에 있다는 점이다. 브레히트는 성서의 유토피아의 모습을 차용한 마하고니시를 무대로 하여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들의 필연적인 몰락의 이야기를 성서 내용을 전도시켜 희화화하고 있다. 독일 사회를 비판하는데 독일인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텍스트인 성서의 내용을 뒤집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이질적이며 선동적인 방법일 것이다.

작품의 배경이 노동이 부재한 쾌락도시인 탓에 생산성이나 계급, 착취 등 자본주의사회 구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은 없었던 것이 이 작품의 한계로 여겨질 수 있다.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에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의 큰 축인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관계’에 대한 비판이 부재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작가로서 브레히트 작품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브레히트는 이 작품에서 자본주의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문제점들인 자본의 불균등한 분배, 인간의 상품화·도구화 및 자본주의 구조의 폭력성에서 나타나는 약육강식 등의 문제를 신랄하게 패러디했다. 이로써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이 단순히 작가의 과도기적인 성격이 작품이라는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후기 작품에 비견될 만큼의 충분히 비판적인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120) 서정일: 같은 글, 289쪽 참조.

참 고 문 헌

I . 일차문헌

Brecht, Bertolt: Aufstieg und Fall der Stadt Mahagonny, Berlin 1968.

Brecht, Bertolt: Werke. Große kommentierte Berliner und Frankfurter Ausgabe, Bd. 2, (Hg.): Werner Hecht u. a., Berlin u. Weimar, Frankfurt a. M. 1988.

Brecht, Bertolt: Werke. Große kommentierte Berliner und Frankfurter Ausgabe, Bd. 21, (Hg.): Werner Hecht u. a., Berlin u. Weimar, Frankfurt a. M. 1988.

II . 이차문헌

Brügemann, Heinz: Franz Kafkas Theater von Oklahoma und Bertol Brechts Netzstadt Mahagonny: Urbane Visionsräume der Moderne, In: Mahagonny.com, 2004.

Brüns, Elke: Spaß muss sein?! Mahagonny und die Spaßgesellschaft, In: Mahagonny.com, 2004.

Drew, David: The History of Mahagonny, In: The Musical Times 104, 1963.

Eke, Norbert: Götter in der Stadt oder “Wo Aas ist, sammeln sich die Gerier!” Stadtuntergänge bei Brecht und Trolle, In: Mahagonny.com, 2004.

Hennenberg, Fritz: Neue Funktionsweisen der Musik und des Musiktheaters in den zwanziger Jahren: Studien über die

- Zusammenarbeit Bertolt Brechts mit Franz S. Bruinier und Kurt Weil, Dissertation B, masch., Martin-Luther-Universität, Halle-Wittenberg 1987.
- Knopf, Jan: Brecht Handbuch, Stuttgart 1986.
- Knopf, Jan: Brecht Handbuch, Stuttgart 2001.
- Milfull, John: From Baal to Keuner. The Second Optimism of Bertolt Brecht, Bern/Frankfurt a. M. 1974.
- Müller, Klaus-Detlef: Bertolt Brecht: Epoche-Werk-Wirkung, München 1985.
- Oesmann, Astris: Tracing the crimes of Capitalism: From Mahagonny to Nazi Germany, In: Mahagonny.com, 2004.
- Pabst, Hans: Brecht und die Religion, Köln 1978.
- Parmalee, Patty Lee: Brecht's America,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1.
- Sehm, Gunter G.: Moses, Christus und Paul Ackermann, Brecht Jahrbuch 6, Frankfurt a. M. 1976.
- Seliger, Helfried W.: Das Amerikabild Bertolt Brechts, In: Studien zur Germanistik, Anglistik und Komparastik, Bd. 21, Bonn 1974.
- Wessendorf, Markus: Mahagonny and the Tourist Gaze, In: Mahagonny.com, 2004.
- 김기선: 작품분석, 실린 곳: 마하고니시의 변영과 몰락,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김덕기: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서의 유토피아적 특성, 실린 곳: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생각의 나무 2002.
- 김형곤: 1920년대 미국 자본주의의 성격, 실린 곳: 동서사학 제4호

- 1권, 한국동서사학회 1998.
- 나인호: 정치종교로서의 나치즘-그 성과와 한계, 실린 곳: 역사문화연구 제2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4.
- 다니엘 벨: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김진욱 옮김, 문학세계사 1990.
- 다자키 히데야키: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김경자 옮김, 삼인 2006.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옮김, 도서출판 길 2010.
- 문용식: 자본주의의 세속화 과정과 기독교의 대응, 실린 곳: 학생생활연구 제8권, 총신대학교 2004.
- 박종천: 맑스주의자 블로흐와 몰트만의 관계, 실린 곳: 맑스주의와 기독교사상, 한울 1988.
- 박현미: 브레히트와 바일의 <서사적 오페라> - 『마하고니 시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백경남: 바이마르 공화국-서구 민주주의 실험의 비극, 종로서적 1985.
- 서정일: 종교윤리의 미학적 수용과 문학적 재해석,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46집, 독일언어문학회 2009.
- 신수경: 쿠르트 바일의 음악극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얀 크노프: 베르톨트 브레히트, 이원양 옮김, 인물과 사상사 2007.
- 얀 크노프: Das Liebesgedicht ohne Libe, 성신여대 독문과 강연 1997.
- 엘리자베스 라이트: 포스트모던 브레히트, 김태원·이순미 옮김, 현대미학사 2000.
- 오인석: 바이마르공화국, 삼지원 2002.
- 윤시향: Bertolt Brecht의 반파시즘 연극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 학위논문 1990.
- 윤시향: 『마하고니시의 흥망성쇠』 작품분석, 실린 곳: 브레히트의 연극세계, 열음사 2001.
- 이경재: 자본주의의 구조적 폭력성, 실린 곳: 인문과학,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 이삼열: 맑스주의와 기독교의 비판적 관계, 실린 곳: 맑스주의와 기독교사상, 한울 1988.
- 이승진: 브레히트의 음반실험: 시집 『도시인을 위한 독본』, 실린 곳: 브레히트의 서사극,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이호경: 젠더 분석 틀로 본 브레히트의 여성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조안 B. 시울라: 일의 발견, 안재진 역, 다우 2005.
- 추태화: 역사 상황과 교회의 정치권력화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독일교회를 배경으로, 실린 곳: 신학과 실천 32권, 한국실천신학회 2012.
- 칼 마르크스: 자본론 제1권,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1.
- 홍근수: 맑스주의와 블로흐 몰트만의 관계, 실린 곳: 맑스주의와 기독교 사상, 한울 1991.

Operkoeln, (<http://www.operkoeln.com>), 27.12.13.

Theater Bremen, (<http://www.theaterbremen.de>), 27.12.13.

Komische Oper Berlin, (<http://www.komische-oper-berlin.de>), 27.12.13.

Zusammenfassung

Kritik am Kapitalismus

durch Bibel-Parodie

-in Bertolt Brechts *Aufstieg und Fall der Stadt Mahagonny*-

Kim, Bitnarae

Fakultä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Seoul National Universität

In dieser Arbeit wird Bertolt Brechts Opern-Stück *Aufstieg und Fall der Stadt Mahagonny* behandelt. Dieses Werk aus Brechts mittlerer Schaffenszeit fällt in die Zeit wo Brecht eine Wende vom jungen Anarchist zum sozialistischen Schriftsteller macht. Brecht zeigt scharfe Kritik an dem Kapitalismus in diesem Werk. In diesem Werk ist es auffällig, dass Brecht durch Parodisierung der Bibel die kapitalistische Maschinerie kritisiert. In dieser Arbeit wird die Gründe, weshalb Brecht Motive aus der Bibel entlehnt, im säkularisierten Christentum gefunden. Aus diesem Grund wird hier zunächst Max Webers Abhandlung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r*

Kapitalismus betrachtet, in der Weber die These entwickelt, dass der Kapitalismus in seinen Anfängen auf der christlichen Ethik, vor allem auf dem Calvinismus basiert. In Brechts Oper *Aufstieg und Fall der Stadt Mahagonny* wird ein Kapitalismus kritisiert, in dem calvinistische Ethik verloren geht. In dem Werk, dessen Schaffenszeit auch in die Zeit des Nationalsozialismus fällt, findet sich neben der Kritik am Kapitalismus auch Kritik an dem entarteten Christentum derzeitiges Deutschlands.

keywords : Bertolt Brecht, *Aufstieg und Fall der Stadt Mahagonny*, Christentum, Bibel, Kapitalismus

Student Number : 2006-20041